

“전북만의 미래성장동력 만들 것”

6·13 지방선거... 송하진 도지사 후보, 친환경상용차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등 10개 세부실천공약 발표

송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28일 4차산업혁명 명대 성장동력! 도민에게 커가는 미래를 선사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신의 산업경제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세계는 지금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기존의 것을 적당히 수정하는 정도의 변화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북도도 지자체 최초로 탄소섬유 R&D 성공을 기반으로 대기업을 유치,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다”며 “전북이 강점을 갖고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결합시켜 전북만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경제제질 자체를 바꿔 나갈 때 비로소

더 큰 미래, 더 큰 전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의 10개의 세부실천공약을 살펴보면 ▲친환경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 ▲정부의 4차산업혁명대응과 연계해 전라북도의 강점인 농생명, 금융, 탄소산업 등 관련 분야에 있어 대표산업을 발굴 ▲농생명 생태계 조성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구축사업 ▲탄소융복합산업 성장기반 확충사업 ▲전북연구개발특구 혁신

성장 생태계 구축강화사업 ▲익산에서 동지를 불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 ▲전북형 벤처창업허브 구축사업 ▲전북금융타운 조성사업 ▲농업·문화·체육·건설 등 복합과의 교류협력 사업 ▲탄소산업과 농생명 바이오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소재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바이오 융복합 창조산업 기반 확충사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

“자치·분권 중심 전북경제 살리기 잘사는 전북 만드는 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송하진 도지사 후보 지지 선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총회장 오호석) 28일 송하진 전북도지사 후보 선거캠프에서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전북도지사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지지선언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2018년도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2018. 3. 26)와 회장단회의에서 의결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지지선언”에 근거하여 오호석 총회

장을 비롯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한국의식업중앙회, 문화나눔실천운동본부, (사)한국이음사회중앙회, (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 (사)한국영상문화시설중앙회, (사)한국건설위생관리협회, (사)한국방역협회,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사)한국유계

음식업중앙회, (사)한국프로사진협회, (사)한국경비협회서울지방협회, (사)전국보일러설비협회,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등 120여 협·단체장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 공동대표 등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오호석 총회장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후보는 “전북도 전주시장 8년, 전북도지사 4년의 재임기간 동안 전주한옥마을을 대한민국 최고의 관

광명소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탄소산업을 일으켜 지방자치단체 경영능력을 최고로 인정받은 등 변방을 극복하고 새로운 중심도시로서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전기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중심 틀속에서 추진되는 송하진 후보의 전북경제 살리기 프로젝트야말로 “대한민국 중심 전북, 더불어 잘사는 전북”을 만들어가는 데 한치의 오차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반대” 28일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전주시 효자동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 도로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6·1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후보자 동향

“익산에 전북도청 제2청사 건립할 것”

임정엽 도지사 후보, 과학기술원 유치 등에 이어 세번째

임정엽 전북도지사 후보(임 후보)가 “익산에 전북도청 제2청사 건립하겠다”고 28일 오후 1시 30분경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약속했다.

임 후보는 “익산은 전북 제2도시지만 전북 도정의 무관심 속에 갈수록 인구가 줄고, 기업들이 폐업하거나 떠나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전북도청 제2청사 건립을 통해 익산의 부흥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임 후보는 “익산은 도청 제2청사로 새관공과 군산의 경제권을 연결



하는 중추 행정기능 지원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특히 익산으로 확대 이전하는 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임 후보는 “실제 익산은 KTX 호남선과 전라선이 만나는 교통 요지 이면서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곳이고 연간 1조 원을 웃도는 예산을 집행하는 익산국도관리청도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익산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가 추진되면서 식품산업 메카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정엽 후보는 “익산에 건립될 전북도청 제2청사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중심지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제 익산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세종시에 버금갈만한 도시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문화번영·경제성장 이끌 펀드 2차 모집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 내달 1일부터... 최대 10만원 약정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가 문화번영과 경제성장을 이끌 펀드를 2차 모집에 나선다.

김 후보는 지난 28일 김승수 펀드 1차 목표액인 1억원이 조기 마감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2차 펀드를 모집하기로 했다.

2차 모집 역시 목표액은 1억원이며,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약정이 가능하다. 펀드 투자액은 연 3.6%의 이자를 적용해 오는 8월 13일 상환하게 된다.

김 후보는 “시민들의 참여로 모아진 펀드는 그간 문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인 전주가 경제적 위상도 문화 못지않게 키워 찬란한 전주시대를 만드는 중추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투자금은 소중하게 사용한 뒤 임금과 이자, 그리고 문화번영·경제성장을 더해 돌려드릴 수 있는 모범적인 선거문화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승수 펀드에 참여해 희망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www.sufund.kr)에 들어가 회원 가입 후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에게 투자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투자는 약정서 동의와 함께 내용 입력 후 계좌로 투자금액 송금하기를 누르면 완료된다. 오프라인을 통한 투자도 가능하다. /기동취재반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동네방네 달리는 선거 로드쇼

전북선관위, 지방선거 맞아 내달 10일까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원바디 차량을 이용하여 동네방네 달리는 선거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선거 로드쇼 차량은 차체 옆면이 위로 열려 홍보무대로 쓸 수 있게 만든 차량으로 5월 23일 전북대학교를 시작으로 6월 10일까지 은파공원, 덕진공원 등 주요 공원 및 광장 등을 찾아가며 유권자와 직접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연 등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유권자를 찾아오게 하는 공연에서 벗어나서 유권자 곁에 직접 찾아가 다양한 문화 공연을 통해 앞으로 15일 남은 지방선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동네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원바디 차량을 지방선거 홍보용으로 래핑하여 시각적인 홍보효과를 높이고 ▲노래, 탭댄스 공연 등 ▲아름다운 선거 컬러링 ▲타투 체험 ▲투표체험 등 유권자 참여 이벤트도 함께 실시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거를 축제처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유권자들의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동네의 축제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후보자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실시간 공개

31일부터 공개시스템 통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http://ecost.nec.go.kr)’에 실시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실시된 정치자금 공개는 후보자가 스스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정치자금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후보자가 선관위에서 제공한 ‘정치자금 회계관리프로그램’에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입력 전송하면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함으로써 깨끗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유권자는 후보자 간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비교·확인할 수 있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러 전북선관위는 후보자가 세부 항목이 기재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위법 혐의나 이의제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직실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는 정당·후보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문화·예술 창업활성화 추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완주문화재단과 협약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이하 전북센터) 28일 센터회의실에서 완주문화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문화·예술분야 혁신과 창업활성화를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자원에 혁신교육과 창업 등을 접목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센터는 이날 완주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문화예술창업 및 사회혁신모델 발굴 ▲교육·포럼 등 연계사업 발굴 ▲문화예술융합분야 진흥을 위한 협력 등을 진행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전북센터는 교육 및 포럼에서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지역 문화·예술분야 혁신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센터 박광진 센터장은 “두 기관의 협력이 지역기반 문화예술에 혁신을 가하고 이를 창업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두 기관의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지역 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블랙리스트 조사단 “수사 협조... 고발은 대법원장 몫”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린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향후 검찰 수사에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 측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수사에 착수해 협조를 요구할 경우 그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상태다.

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혀 ‘셀프조사’ 한계 논란이 일었다. 전문분야연구회 중목기인 해소조치 관련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가 논란이 있고, 인터넷 익명계시판 게시글 관련 업무방해죄는 성립되기 어려우며, 이 밖에는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에서다.

조사단은 형사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단정적인 결론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행정처가 적극적인 고발주체가 되기에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또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대법원장의 몫임을 시사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거나 개인성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가 아니면 법원행정처가 적극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하는 것은 사건에 유리 심증을 줄 수 있어 상당한 부담이 있다”며 “검찰 수사는 검찰에서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중한 표현을 쓴 것으로 모든 가능성을 봉쇄한 것은 아니다. 결론에서 열거하고 있다고 언급하지 못한 것은 불확”이라며 “중국적으로 형사상 고발이 필요하다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결정해 조치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뉴스